

## “정부·생산자단체· 농가 역할 분담해야”



김 용 진(축협중앙회 조사부 차장)

수입개방 현실은 현실대로 인식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모돈회전율이라든가 이유두수, 출하두수 등의 성적은 선진양돈국과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다.

주제발표자께서 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듯이,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꼭 해주어야 한다. 또 양축가는 사양기술을 높이고, 생산자단체는 정보제공과 기술지도를 하는 등 정부와 생산자단체, 생산농가간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간 양축농가들이 부르짖은 배합사료 등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정말 답답하다. 농어촌특별세를 걷는 마당에 축산생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 꼬리 자기가 잘라먹

는 꼴과 같다. 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돈농가들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현재의 모돈회전율을 1.9를 2.2~2.4로 높이고 출하두수를 늘리는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식육의 안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반드시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돼지고기 수출도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의 3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93년도 일본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1백55만톤으로 이중 46만 7천톤을 수입했다. 일본의 수입량중 대만이 43%, 덴마크 32%, 미국 15%, 한국이 2%를 차지했다. 총 수입량중 냉장육이 27%로 냉장육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발표자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냉장육 수출이 어렵다면 앞으로 돼지고기 수출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표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냉장육 수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 국내 검역관을 초빙해서 검역을 한후 냉장육을 한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대만은 향후 5년간 돼지 사육 규모를 30% 축소할 예정이고, 덴마크도 동구라과지역에 수출을 치중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여건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돈 생산여건으로는 규격돈과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이 어려우므로, 양축농가에 대한 사양기술지도와 육가공 기술교육 등이 필요하다.